

여야, ‘대정부 질문·특검 재표결’ 대치정국 예고

오늘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
민주 “내란 동조” 국힘 “李 리스크”
‘내란·명태군 특검법’도 공방 전망
민주 “반드시 재의결” 국힘 “부결”

조기 대선을 50여일 앞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국회는 14~16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양당이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증명된 만큼, 차기 정부 집권의 정당성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 있

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주류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 파괴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쥐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뭇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제 투자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무엇보다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내란동조당의 실상을 낱알이 따지고 들어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심각한 경제·통상 위기와

정책 대응 문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입법 폭주’와 ‘출탄핵 폭거’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정외 발목을 잡고 ‘협치 정신’을 무력화했으며, 계엄 이후에도 탄핵·특검을 남발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한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8개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부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을 전면 배치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 운영에 마비가 오고 ‘대행의 대행 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보겠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 공세에만 몰두했을 뿐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가 운영의 자격이 없는 선동·조작당의 민낯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 이후 열리는 17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재표결 대상 8개 법안 중 ‘내란 특검법’과 ‘명태군 특검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도

재표결 대상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들 법안의 재의결을 관철하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부결을 위한 단일 대오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명태군 특검법과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정당을 어떤 국민이 택할 수 있겠나”라면서 “국민의힘은 당장 법안 재표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로 이 예비후보의 범죄 혐의를 몰타기 하며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뻔하다”며 “물 샬 틈 없는 부결 대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출마후 첫 일정… 오늘 퓨리오사AI 방문

성장경제 행보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한다. 6·3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성장·경제’ 중심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 캠프 소속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예비후보는 출마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성장경제 행보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예비후보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NVIDIA)의 독점을 깰 한국산 기술력 현장을 직접 방문해 AI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 주도를 할 수 있다는 비전과 지원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 예비후보 캠프에서 윤호덕 정책본부장과 이해식 비서실장, 김태선 수행실장, 강 대변인이 동행한다. 퓨리오사AI에서는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

가 주도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K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을 앞세우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출마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출마선언 동영상에서도 “첨단과학기술 투자가 중요한데 과학기술 수준이 너무 낮아져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퓨리오사AI는 최근 미국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에 매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백 대표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백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부터 대선 경선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까지 당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이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총 4명이다.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힌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당 “대권 저울질하는 한덕수, 양심 있나”

“거취 명확히 하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국정을 볼모로 대권을 저울질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심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성희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안 그래도 망가진 국정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이를 두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한덕수 대행이나 국민 앞에 엄치가 있기는 한지 묻고 싶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헌정을 유린한 내란범죄자를 배출한 정당이다. 불법계엄과 내란을 획책하는 대통령을 막지 못하고 파면 당하게 만든 실패한 국무총리”라고 더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내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방조하고 일조했던 자들이 다시 권력을 잡겠다며 국정을 볼모 삼고 있다. 부끄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다. 권력에 대한 집착은 접어두고, 국민 앞에 처절한 반성부터 하라”고 보냈다.

또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한다. 국정을 자신의 욕망을 저울질하는 일에 이용하지 마라”며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부여된 책무는 단 하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대선을 관리해야 할 자가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여전히 자리에 앉아 대선 국면을 관리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지금 당장 스스로의 거취를 명확히 하라”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예비후보 경선 캠프 인선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하는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식 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 한병도 종합상황실장, 윤호덕 정책본부장, 강훈식 총괄본부장, 이재명 예비후보, 윤호중 선대위원장, 수어통역, 김영진 정무전략본부장, 박수현 공보단장.

연합뉴스

오세훈, 대선 불출마… “尹 정부 실패 반성·사죄”

“국힘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 “낡은 보수 단절… 새 길 열어야”

유력한 여권 대권 후보였던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 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한다”며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

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의 비전과 함께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해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분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대행 스스로의 결단·의지로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 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해서 너도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며 “지난 일주일간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유승민, 대선 불출마 “국힘, 반성·변화의 길 거부”

국민의힘 유승민(사진) 전 의원이 13일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며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또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독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어디에 있든 제가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